

1. 스티로폼재활용 견학 실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소속 초등학생들과 지도교사 30여 명이 참가한 스티로폼 재활용 견학이 지난 8월 23일 협회 장재선 차장의 인솔하에 실시되었다. 이번 견학은 잉고트 생산업체인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원수지지원(대표 이은숙)과 펠릿 및 액자프레임을 생산하는 (주)하이우드(대표 김명섭)를 방문하여 스티로폼이 회수·재활용되어 재생제품화 되는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버라이어티 중 '가치대발견 보물찾기' 등 TV 방송자료 시청을 통해 스티로폼의 장점 및 스티로폼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습득한 참가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스티로폼을 투입하여 잉고트를 만들어보기도 하며 버려진 폐자원 스티로폼이 재활용을 통해 액자프레임 등으로 다시 태어나 해외에 수출까지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과정을 확인하며 신기해하였다. 또한 그동안 잘 모르거나 소홀히 했던 스티로폼 재활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회는 스티로폼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견학을 희망하는 각급학교 학생, 환경 및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스티로폼재활용 현장 단체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선정

환경부가 후원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2007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 선정이 완료되었다. 협회는 9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최우수지자체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스티로폼재활용 최우수지자체로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 선정 위원회에는 환경부 국현수 사무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 스티로폼 원료사 영업팀장, 협회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김해시는 전국 각시·도로부터 추천을 마친 16개의 시·군·구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지자체(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제주 제주시)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및 실사 결과를 검토한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재활용 실적, 홍보활동, 지자체의 재활용 의지 등에서 타 시군에 앞서 선정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어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지자체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 표창과 5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되며 우수지자체는 협회장 공로패와 100만 원의 부상을 받게된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은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년도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지자체(1개소): 경남 김해시, 우수지자체(15개소): 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광주 북구, 울산 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경주시, 전남 화순군,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영동군,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3. 최주섭 부회장, 환경컨퍼런스 주제발표



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가 주최하는 '연안환경오염환경컨퍼런스'가 9월 7일 경남 남해시에 있는 남해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 협회 최주섭 부회장은 '수산물양식용 EPS부자 사용 및 처리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를 통해 최 부회장은 정부가 EPS부자를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협회가 기존의 EPR제도에 따른 의무이행 경험을 살려 환경부와 폐부자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업체의 의무를 이행 할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현재혁 교수가 '해양폐기물의 발생, 처리현황 및 대책방향'을 남해연구소의 강정훈 박사가 '선박평형 수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